

#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연구 : 진로태도, 직업가치관, 사회적지지

## The Influence of Adolescent's Career Attitude, Occupation Value, and Social Suppor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강란혜\* · 이미정

충신대 아동학과, 여주대 보육학과

**Kang, Ranhye\* · Lee, Mijeong**

Dept. of Child Studies, Chongshin University

Dept. of Young Child Care, Education & Welfare, Yeosu Institute of Technology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demographic, occupation value, career attitude, and social support on high school stud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data was collected from the Korean Survey on of the Career and occupation of Youth in 2009(N=3,499). Descriptive statistics, One-way ANOVA, T-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on SPSS 17.0.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ccording to gender was much higher for female students than male student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ccording to school years. The first year students' perception in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as higher than the second, and third year students. The first year students' perception in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as higher than second, and third year students. Seco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had a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work value, career attitude, family support, and school support. Third,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career decisiveness and family support was a strong factor i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addition, among all factors, the career decisiveness of career attitude was proved to be the most influential factor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study discusses practical implications for career education programs.

**Keyword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ccupation value, career attitude, social support, high school students

## I. 서론

진로 발달단계 중에서 자신의 흥미와 능력 및 환경적인 요소를 파악하여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하고 구체화하며 그에 맞는 준비를 통해 직업을 결정하는 것은 청소년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발달과제이다. Erikson(1968)의 발달단계에 의하면 청소년기는 자아정

체감을 확립하고 장래의 교육적, 직업적 진로를 결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준비를 해나가는 시기이다. 따라서 자신에게 만족스러운 진로 및 직업을 선택하고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의 청소년들은 입시위주 교육 풍토로 인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직업세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그리고 자신의 적성을 발견할 기회

---

\* Corresponding author: Kang, Ranhye  
Tel: 02-3479-0362  
Email: krhkang@nate.com

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서 청소년들이 충분한 진로 정보를 수집하기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대학입시라는 과중한 스트레스 속에서 자신의 관심영역이나 적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하는 탐색과정을 가져보지 못한 채 곧바로 대학에 진학하기 때문에 대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진로문제로 많은 좌절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남윤희, 2007; 윤명희, 서희정, 2009).

송소원 외 (2007)의 연구에서 진로 및 취업에 관한 재학생 의식조사 결과, 진로결정 시기를 묻는 질문에 전체 학생 중 33.6%가 '대학입학 이전'이라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66.4%의 학생들은 대학 생활 중에 진로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진로결정을 짓지 않고 대학에 들어오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송현심, 홍혜영, 2010). 이에, 그들의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진로에 관련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진로준비행동의 관련변인을 다각적으로 규명하려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진로와 관련된 연구의 주된 관심은 진로태도에 관한 것이었다(김봉환, 1997; 이현주, 1998; Winner, 1992).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진로태도와 관련된 변인으로 성 유형, 적성 및 성격, 불안, 의사결정 유형, 진로성숙도나 진로 정체감 등(이기학, 1997; Luzzo, 1993)이 매우 중요한 변인들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들은 대부분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하는데 그치고 있다.

최근에는 진로 및 취업지도에 있어서 진로준비행동과 같은 실천적인 행동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최동선, 2003). 진로를 결정한 학생일지라도 진로준비행동을 하지 않는 학생은 취업하기 어렵다. 이는 진로결정의 최종 목표인 취업에 진로준비행동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진로 및 취업을 지도하는데 적극적으로 자기 탐색 및 직업탐색과 같은 행동을 하도록 지원해야 된다(Blustein & Flum, 1999).

Super(1955)는 진로태도를 진로 선택 및 결정 과정에서 개인의 발달 정도 및 준비 정도로 보았다. 이러한 진로태도는 진로발달의 중요한 변인이라고 볼 수 있으나 개인의 진로태도가 아무리 성숙되어 있다 하더라도 진로준비에 대한 행동적인 측면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진로발달의 각 단계의 과업을 달성했다고 볼 수

없다.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인지나 태도적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차원에서의 진로준비를 위한 행위인 진로준비행동이 필요하다. '진로준비행동'은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행동이고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한다(김봉환, 1997)고 하였다. 최근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구체적인 행동차원에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Borg(1996)는 진로준비행동에는 직업가치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Schulenberg *et al.* (1993)는 청소년들이 진로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중요한 이유는 개인의 직업가치가 명료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진로선택 및 준비행동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직업가치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의 진로발달 단계의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직업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구체화하여 그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하는 진로에 대한 성숙한 태도와 진로준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남순현, 2005).

청소년의 직업가치가 진로준비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 청소년이 성숙된 진로태도를 가지고 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신이 직업에 대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진로를 결정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진로준비행동과 함께 고려될 수 있는 것으로 사회적 지지를 들 수 있다. 자신의 진로는 자신이 결정해야 한다 라는 것은 매우 중요 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원조의 개입이 준비되어야 한다. 사회적 지지와 진로발달의 관계를 고찰한 Bristor *et al.*(1995)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지지적인 대인 관계망(interpersonal networks)은 개인의 진로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개인의 진로결정에 있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제한적인 반면에 사회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진로선택에 관한 원조의 하나로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

Cohen과 Hoberman(1983)은 사회적지지만 광의의 개념으로 볼 때 타인들로부터 제공되는 각종 자원을 일컬으며, 가족, 친구, 이웃, 교사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사회적 지지 또한 진로를 결정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고 있다. Betz(1989)는 사회적 지지를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인 자원이라고 했으며, 진로와 관련하여 있을 때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적극적으로 진로행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국내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은 정적상관이 있었으며(고태용, 2008; 박지은, 2006; 조명실, 2007; 송재영, 2003),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 있어 가족과 중요한 타자와의 결속,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격려와 충고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연구는 다수이다(Tolbert, 1980; 한수현, 2003; Kracke, 1997).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들의 진로 선택 및 결정의 과정에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Mallinckrodt와 Fretz(1988)는 성인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사회적 변인 총 점수와 진로준비행동 간에 긍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Vinokur와 Caplan(1987), 그리고 Kracke(1997)는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로 부터 받은 구체적인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여 가족들 간의 확고한 관계는 안전기지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진로준비행동을 촉진시킨다고 보았다. 이현주(2001)연구에서도 부모의 지지가 진로정체감을 매개로 하여 진로준비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은 어머니, 아버지, 친구, 교사 등이 청소년에게 의미 있는 타인이며,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주요한 사람임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김수민, 1987; 심미경, 1986; Buhrmester & Furman, 1984; Furman & Buhrmester, 1992; Hunter & Youniss, 1982).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의 청소년들은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됨에 따라 학교는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되었다. 교사는 청소년들이 부모 다음으로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성인으로 교사를 통해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 가치관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가족과 학교의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들의 진로준비행동에 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준비행동과 성별에 대한 연구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최영미(1998)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은 차이가 없었다. 진미경(1999)과 박지은(2006)의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

동 정도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영미(1998)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진로준비행동이 더 활발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진로준비행동이 성차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Betz와 Hackett(1986)는 여성의 진로발달에 대한 이해는 여성이 남성보다 자신의 진로를 적극적 성격 경향들이 발달시키는데 근본적으로 다른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손은령, 손진희(2005)는 진로준비행동과 개인적 변인 및 맥락적 변인간의 관계 연구에서 맥락적 변인인 진로장벽 변인보다 성, 학년과 같은 개인적 변인이 진로준비행동과 높은 상관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중 학년과 진로준비행동의 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나 학년 변인과 같은 개인적 변인들은 진로행동을 설명하는데 간과할 수 없는 변인이며, 학년이 진로준비행동을 설명해 주는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임을 강조하였다. 김계현, 김봉환(1997)은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발달적 속성을 지닌다고 보았으며 진로결정과 진로준비행동은 어느 시기에 이르러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며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즉, 진로준비행동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고태용, 2008; 김봉환 외, 2008; 조지혜, 2007).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 성별과 학년 변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처럼 진로준비행동이 청소년들의 진로 및 취업지도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선행 연구를 보면 진로정체감(Blustein *et al.*, 1989), 부모와의 애착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Lee & Hughey, 2001), 그리고 가족의 사회적 지지(이현주, 2001), 진로결정 효능감(Betz & Vuyten, 1997; 양승민, 2003) 등이 고려되어 왔다. 이와 같은 변인 중 진로정체감이나 성격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변인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Blustein, 1989; Schmitt-Rodermund & Vondrack, 1999). 그러나 진로태도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매우 적은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직업가치와, 진로

태도, 그리고 사회적 지지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연구해보고자 한다. 개인이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결정된 진로목표 달성을 위해 얼마나 충실하게 행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연구가 더욱 더 절실히 필요하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개인적 변인인 성별, 학년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직업가치관, 진로태도, 사회적 지지(가정진로교육지지, 학교진로교육지지)이 진

로준비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개인적 변인, 진로태도, 직업가치관, 사회적지지 변인)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이 가장 큰 것은 어떤 변인인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 사용된 분석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09 한국 청소년 진로·직업 실태조사'자료

〈표 1〉 응답자의 배경 변인별 분포

구분	연구대상	빈도(n)	백분율(%)
성별	남자	1,955	55.9
	여자	1,544	44.1
	합 계	3,499	100.0
학년별	고1학년	1,236	35.3
	고2학년	1,217	34.8
	고3학년	1,046	29.8
	합 계	3,499	100.0
학교유형	일반계고	2,364	67.4
	전문계고	1,135	32.4
	합 계	3,499	100.0
거주지	서울	511	14.6
	광역시	1,385	39.6
	시, 군	1,603	45.8
	합 계	3,499	100.0

〈표 2〉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 조사내용 및 문항

	내 용
1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과나 직업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본 적이 있다.
2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연락(이메일, 전화 등)해 본 적이 있다.
3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동영상이나 TV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4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 해 본 적이 있다.
5	나의 진로 문제와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다.
6	진로와 관련하여 나의 적성이나 흥미, 성격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다.
7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요구되는 능력이나 기술을 갖추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8	학교공부 외에도 나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9	방과 후나 방학 등을 이용해 직업 체험을 해본 적이 있다.
10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책, 홍보물 등을 읽어 보았다.

를 활용하였다. ‘2009 한국 청소년 진로·직업 실태조사’의 청소년 패널 자료는 제주도를 제외한 12개 시도의 전국 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1~3학년)과 일반계와 전문계를 포함한 고등학생(1~3학년)을 대상으로 총 6,509명의 조사대상자의 자료이다. 본 연구는 이 중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자료의 총 응답자는 총 3,499명이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성별, 학년, 성적, 학교유형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1,955명(55.9%), 여학생이 1,544명(44.1%)이고, 학년별로는 고 1학년이 1,236명(35.3%), 고 2학년 1,217 (34.8%), 고 3학년 1,046명(29.9%)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으며 고 1학년 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일반계고가 2,364명(67.5%), 전문계고 1135명(32.4%)이고, 권역별로 보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이 511명(14.6%), 광역시 1,385명(39.6%), 시, 군 1,603명(45.8%)으로 시, 군에 거주하는 학생이 가장 많았다.

##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한국청소년 패널조사’의 10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표 2>.

진로준비행동의 각 문항들은 모두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84이다.

직업가치관 요인은 직업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관으로 직업이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갖는 것’,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하는 것’ 등 총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들은 모두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선택기준으로 자아성취와 안정성을 높게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62이다.

진로태도 요인은 진로에 대해 ‘나는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미 정해 놓았다’, ‘내가 계획한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얻는데 관심이 많다’ 등을 묻는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들은 모두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를 위해 실제적으로 충실하게 행위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62이다.

진로태도의 4개의 하위요인들의 측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결정성(3문항): 결정성은 자신이 선택하고자 하는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안정감과 일관성의 태도를 측정하는 차원이다.

② 확신성(2문항): 확신성은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 앞으로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적 믿음과 확신 정도를 측정하는 차원이다.

③ 준비성(3문항): 준비성은 진로결정에 필요한 사전 이해, 준비 및 계획정도, 직업 및 진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현명한 진로 선택에 필요한 진로정보 수집능력, 의사결정능력의 수준을 나타내는 차원이다.

④ 독립성(2문항): 독립성은 자신의 진로문제를 자신이 주체적으로 결정하는가 아니면 타인에게 의존하여 결정하는가의 태도를 측정하는 차원이다.

사회적지지 요인은 가정과 학교요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가정진로교육지지 요인은 ‘미래의 나의 직업목표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 ‘가족과 함께 진로관련 전문기관 방문’ 등 총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학교진로교육지지 요인은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을 통한 진로교육’, ‘상담 중심의 진로교육’ 등 총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들은 모두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를 많이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적지지 중 가정진로교육지지 척도의 신뢰도는 .85, 학교진로교육지지 척도의 신뢰도는 .92이다.

통제변수로서는 성별, 학년을 사용하였다. 성별은 남자는 1, 여자는 2로 코딩하여 분석하였고, 학년은 고등학교 1학년은 1, 고등학교 2학년은 2, 고등학교 3학년은 3으로 코딩하여 분석하였다.

## 3.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 17.0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개인적 변인인 성별, 학년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과 One-Way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성별, 학년, 청소년의 직업가치관, 진로태도, 사회적 지지(가정진로교육지지, 학교진로교육지지)이 진로준비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

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Ⅲ. 결과 및 분석

#### 1. 주요 변인에 대한 기초 자료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직업가치관, 진로태도, 사회적지지, 진로준비

행동 수준에 있어서의 평균 및 표준편차가 <표 3>에 나타나 있다. 직업가치관의 평균은 75점 만점에 평균 59.10로 나타났고 진로태도의 평균 만점은 50점 만점에 평균 31.55로 나타나 직업가치관과 진로태도 모두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 진로태도의 하위변인 별로 평균을 보면 결정성의 만점은 15점에 평균 9.91, 확신성은 10점 만점에 평균 6.62점, 준비성은 15점 만점에 평균 10.99점, 독립성은 6점 만점에 4.41점으로 나타나 모두 평균 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의 하위변인 별로 평균을 보면 가정지지의 평균 만점 35

<표 3>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

(N=3,499)

구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직업가치관	15	135	59.10	7.09	
진로태도	10	90	31.55	4.98	
진로 태도	결정성	3	27	9.91	3.23
	확신성	4	18	6.62	1.78
	준비성	3	27	10.99	2.16
	독립성	2	18	4.41	1.86
사회적지지	19	95	57.15	11.88	
사회적 지지	7	39	22.32	5.43	
가정지지	12	102	34.07	9.20	
학교지지	10	90	29.15	7.85	
진로준비행동					

<표 4> 성별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남자	1,955	28.27	8.23	-7.84***
여자	1,544	30.25	6.70	

\*\*\*  $p < .001$

<표 5> 학년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

(N=3,499)

요인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1학년	1,236	29.62	8.06
2학년	1,217	28.54	7.11
3학년	1,046	29.29	7.73
합계	3,499	29.15	7.65

<표 6> 학년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석

(N=3,498)

변인	변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사후검증
학년	집단간	747.72	2	373.862	6.39*	1>2*
	집단내	204405.29	3496	58.468		1>3**
	전체	205153.02	3498			

\*  $p < .05$  \*\*  $p < .01$

점에서 평균 22.32로 나타났고, 학교지지는 평균 60점 만점에서 평균 34.07로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의 평균은 50점 만점에 평균 29.15로 조사되어 평균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2. 성별, 학년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에 차이

<연구문제 1> 성별과 학년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t검증, 일원변량분석과 Scheffe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4>,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진로준비행동은 남자가 평균 28.27(SD=8.23), 여자는 30.25(SD=6.07)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t=-7.84(p<.001)$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여학생의 진로준비행동수준이 남학생의 진로준비행동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학년 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은 평균이 29.62(SD=8.06)이고, 2학년 학생은 28.54(SD=7.11), 3학년 학생은 29.29(SD=7.73)로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1학년 학생이 진로준비행동 점수가 가장 높고, 다음이 3학년, 2학년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F검증을 실시한 결과<표 6>,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6.39, p<.05$ ). 이러한 학년에 따른 차이가 어떤 집단 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e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1학년과 2학년, 2학년과 3학년에 학년 간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1학년이 2,3학년보다 진로준비행동을 더 많이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진로태도, 직업가치관, 사회적지지 변인과 진로준비행동간의 관계

<연구문제 2> 청소년이 직업가치관, 진로태도, 사회적 지지(가정진로교육지지, 학교진로교육지지)과 진로준비행동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통해 pearson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진로준비행동과 성별 간에는 유의한 낮은 정적 상관( $r=.129, p<.01$ )을 보였다. 진로준비행동과 직업가치관( $r=.094, p<.01$ ), 진로태도( $r=.278, p<.01$ ), 가정진로교육지지( $r=.342, p<.01$ ), 학교진로교육지지( $r=.215, p<.01$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진로태도의 하위 변인들을 살펴보면, 결정성( $r=.384, p<.01$ ), 준비성( $r=.144, p<.001$ ), 확신성( $r=.081, p<.001$ )에서 유의한

<표 7> 주요변인들간의 상관관계

	1.성별	2.학년	3.직업 가치관	4.진로태도	5.결정성	6.확신성	7.준비성	8.독립성	9.가정 진로교육 지지	10.학교 진로교 육지지	11. 진로 준비 행동
1	1.000										
2	-.032*	1.000									
3	.006	.002	1.000								
4	.097**	.065**	.202**	1.000							
5	.002	.067**	.120**	.629**	1.000						
6	-.059**	.036*	.131**	-.059**	.214**	1.000					
7	.016	-.029*	.417**	.134**	.056**	.064**	1.000				
8	-.030*	-.022	-.026	.358**	-.173**	-.159**	.118**	1.000			
9	.011	-.045	.186**	.235**	.282**	.142**	.202**	.064*	1.000		
10	-.024	-.166**	.111**	.243**	.127**	-.005	-.160**	.252**	.384**	1.000	
11	.129**	-.020	.094**	.278**	.384**	.144**	.081**	-.083**	.342**	.215**	1.000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독립성( $r=-.083, p<.001$ )은 낮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것은 진로태도성숙의 결정성, 확신성, 준비성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더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신의 진로의 방향에 대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수록, 진로결정에 필요한 준비 및 계획과 같은 진로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을수록, 자신의 진로선택에 관해 어느 정도 믿음과 확신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더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독립성이 낮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진로선택 및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의견 및 결정을 따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독립성의 정도가 낮은 사람은 자신의 진로선택 능력에 자신감이 부족하여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주위 사람의 의견 및 평가에 의존하는 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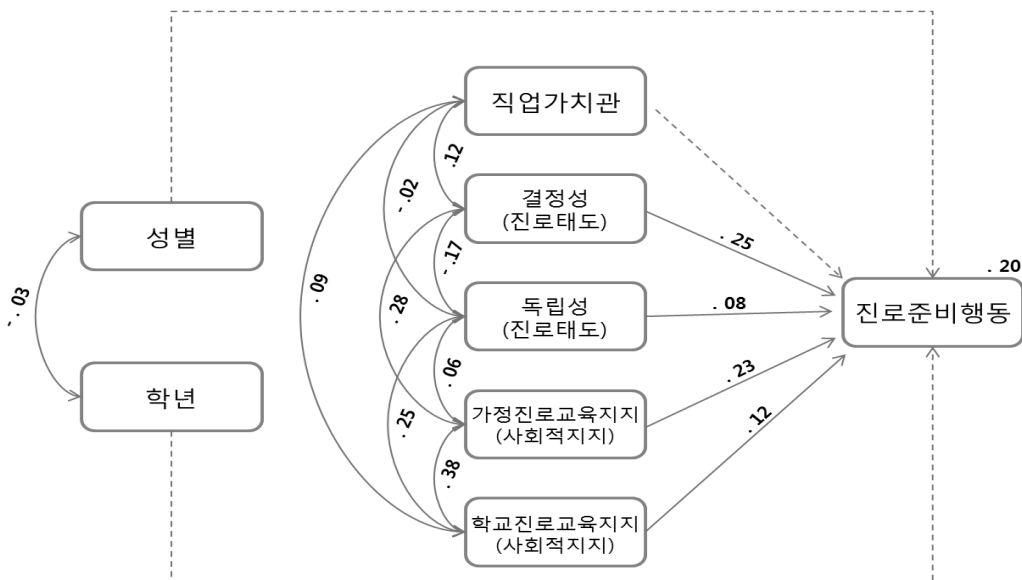
한편, 진로준비행동과 가정진로교육지지( $r=.342, p<.01$ ), 학교진로교육지지( $r=.215, p<.001$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가정과 학교에서 진로를 위해 지지해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더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 검증은 회귀모형에 변수를 투입하기 전에 분석에 왜곡이 없도록 다중공선성

〈표 8〉 주요변인들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상대적 설명력(N=3,499)

독립변수	B	$\beta$	t	R <sup>2</sup>	R <sup>2</sup> 의 변화량
(상수)	14.097				
진로준비행동				.20	
가정진로교육지지 (사회적지지)	.369	.233	5.58***		.11
결정성 (진로태도)	.739	.254	6.51***		.07
학교진로교육지지 (사회적지지)	.113	.119	2.77***		.01
독립성 (진로태도)	-.313	.080	-2.01*		.01

\*\*\* $p<.001, *p<.05$



\*점선은 유의도가 없음을 표시 함.

[그림 1]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관련변인의 영향



(multi-collinearity)을 확인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분모형에서 독립변수간 상관관계는 대부분 .05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4. 진로태도, 직업가치관, 사회적지지 변인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3>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진로태도, 직업가치관, 사회적지지 요인, 성별, 학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진로준비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결정성( $\beta=.254, p<.001$ ), 가정진로교육지지( $\beta=.233, p<.001$ ), 학교교육진로지지( $\beta=.119, p<.001$ ), 독립성( $\beta=.080, p<.05$ )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진로태도가 결정성일수록, 가정에서 진로교육에 대한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학교진로교육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진로태도의 독립성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수준은 높게 나타났다. 이들 변수들은 진로준비행동을 20% 정도로 설명해 주는데, 사회적지지인 가정진로교육지지는 11%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지니며 여기에 진로태도의 하위변인인 결정성이 첨가됨으로써 설명력이 7%증가하여 18%의 설명력을 가지며, 사회적지지인 학교진로교육지지가 첨가할 경우에는 1%가 증가하여 19% 설명력을 가지게 된다. 여기에 진로태도의 하위변인인 독립성이 첨가할 경우 1% 증가하여 전체 20%의 설명력을 가진다<표 8>.

또한 F값 228.89은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위의 회귀모형식이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에 대한 상대적인 설명력에는 가정진로교육지지, 진로태도의 하위변인인 결정성, 학교진로교육지지, 진로태도의 하위변인인 독립성 순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에 의하여 설명되는 종속변수의 비율을 의미하는  $\beta$ 값은 진로태도의 하위변인인 결정성이 .254, 사회적지지인 가정진로교육지지가 .233, 학교진로교육지지가 .119, 독립성이 .080로 결정성의  $\beta$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준비행동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진로태도의 하위변인인 결정성( $\beta=.254, p<.001$ )으로 나타났다[그림 1].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방향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 결정되어 있을수록 또한, 가정진로교육지지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중요한 발달과업 중의 하나인 진로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대학생들의 진로발달에 가족의 특성과 개인의 특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발달을 위해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가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하는데 있어 개인적 변인(성별, 학년), 심리적변인(직업가치관관, 진로태도), 사회적지지 변인(가정진로교육지지, 학교진로교육지지)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해 보면 첫째, 개인적 변인인 성별, 학년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수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라서 진로준비행동수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준비행동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진로준비에 더 영향을 준다는 Suzanne와 David(2009)와 김은진(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좀 더 진로선택 과정 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년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수준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진급 후 다소 낮아졌다가 3학년이 되면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Scheffe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년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수준은 1학년이 2, 3학년에 비해 높았고 2학년에 비해 3학년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증가한다는 선행연구들(김봉환, 1997; 이제경, 1997; 김희진, 2001; 전미애, 2006; 최숙현, 2008; 양진희, 2008)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로, 이는 고등학교에서 진로교육이 계속적으로 진로지도 및 상담이 학년별로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교육과 환경의 제공 및 직업교육 훈련으로 강

화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고등학교 3년간은 대학입시만을 준비하는 시기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적성에 맞는 즉, 취미와 적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진로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

둘째, 심리적 변인인 직업가치관, 진로태도,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심리적 변인과 사회적지지 모두 진로준비행동수준과 정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태도와 진로준비행동 간에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 영향력을 검증하였는데 진로태도 수준이 높은 대학생들이 진로준비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한 김남홍(2001), 김영태(2005), 최숙현(2008)의 연구와 일치한다.

셋째,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변인별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진로태도의 하위변인인 결정성과 독립성, 가정진로교육지지와 학교진로교육지지가 진로준비행동을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업가치관은 진로준비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치관은 태도 변인으로서 행동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또 다른 개입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김남홍(2001)은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진로성숙도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다는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하위요인별로 결정성, 독립성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는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문선아(2001)의 연구에서도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여 주며, 특히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 중 결정성 요인에서 진로준비행동은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사회적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 변인인 가정진로교육지지가 학교진로교육지지만다 진로준비행동수준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보다는 가정에서의 진로교육에 대한 경험이 진로준비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는 Betz *et al*(1986)는 사회적 지지인 가정에서 적극적인 진로활동을 돕는다고 하였으며, Blustein(1989)은 사회적 지지가 잘 이루어진 청소년은 진로탐색을 더 잘 준비한다고 보고하였다. 즉,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는 진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회적 지지의 실제적 도움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기의 시기는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하고 구체화하여 그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진로발달 과업을 잘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타인의 사회적 지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진로태도, 사회적지지가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진로준비행동 수준의 향상을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을 위한 지지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실제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진로발달의 관점에서 태도적인 측면과 행동적인 측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특히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태도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매우 적은 편이었다. 진로상담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적인 측면과 행동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함을 밝힌 것이 본 연구의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전체 고등학생으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인문계와 전문계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다양하게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후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회·심리 내적인 변인들이 추가로 포함되어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진로준비행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진로상담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제시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주제어:** 진로준비행동, 진로태도, 직업가치관, 사회적지지, 청소년

## 참 고 문 헌

- 고태용. (2008).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장벽이 대학생들의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목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금선미. (2009). 여대생이 지각과 희망과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

- 학위논문.
- 김계현. (1995). **상담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계현,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9(1), 311-333.
- 김남홍. (2001).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2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봉환, 정철영, 김병석. (2008). **학교진로상담**(pp. 86-87). 서울: 학지사. Super, D. E., Starishesky, R., Mnatlin, N., & Jordaan, J. P.(1963). Career development: Self-concept theory, New York: College Examination Board.
- 김은진. (2001).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애착이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인간이해**, 22, 97-116.
- 김수민. (1987). 사회조직망 내의 대인관계에 대한 아동의 지각.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태. (2005). 대학생의 정신건강과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원광대학교논문집**, 34, 81-104.
- 김행수. (2009).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기효능감이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수준에 미치는 영향.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희진. (2001).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이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5, 369- 393. 평택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남순현. (2005). 전공몰입과 직업가치관: 성별, 지역별, 계열별 차이를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9(1), 223-242.
- 남윤희. (2007). 2007년 신입생실태조사 분석, **학생생활연구**, 30, 1-40. 숙명여자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
- 문선아. (2001). 불안과 성취동기가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지은. (2006).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은령, 손진희. (2005). 한국 대학생의 진로결정 및 준비행동-사회 인지적 진로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399-417.
- 송재영. (2003)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진로탐색 행동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현심, 홍혜영. (2010).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율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1(3), 1325-1350.
- 심미경. (1986). 아동이 인지하는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승민. (2003).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 상호작용 양식과 진로결정 효능감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진희. (2008). 심리적 독립,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여대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지현, 송소원, 안연주. (2007). 진로 및 취업에 관한 재학생 의식조사, **학생생활연구**, 21, 1-73. 상명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윤명희, 서희정.(2009). 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평생진로개발역량의 탐색, **문화콘텐츠 연구**, 14, 1-31. 동의대학교 문화콘텐츠연구소.
- 이기학. (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 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자아존중감 진로태도 내외통제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득연. (2004).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간의 관계.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제경. (1997). 進路 決定水準과 進路準備行動 發達の 大學專攻分野別 比較.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 (1998).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분석.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현주. (2001). 대학생의 심리 사회적 특성과 진로탐색활동의 인과관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5(3), 257-280.
- 전미애. (2006).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진미경. (1999).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따른 진로유형화와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명실. (2007).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지혜. (2007). 성취동기, 직업가치, 진로장벽이 대학생

- 의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동선. (2003).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동기 요인 및 애착의 관계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숙현. (2008). 대학생의 진로장벽, 진로포부, 진로태도 성숙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영미. (1998). 진로결정수준과 진로행동의 네 가지 유형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수현. (2003). 사회적 지지와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미결정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미리. (2006). 양육시설 청소년의 진로준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Betz, N. E., & Hackett, F. (1986). Application of self-efficacy theory to understanding career choice behavior.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4, 279-289.
- Betz, N. E., & Vuyten K. K. (1997). 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influence career exploration and decision,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6: 179-189.
- Betz, N. E. (1989). Implications of the null environment hypothesis for women's career development and for counseling psychology. *Counseling Psychologist*, 17, 136-144.
- Borg, R. (1996). Factors determining career choice. *European Education*, 28(2), 6-20.
- Burke, R. J., Bristor, J. M., Rothstein, M. G. (1995). The role of interpersonal networks in women's and men's career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Career Management*, 7, 25-32.
- Blustein, D.L. (1989). The role of goal instability and career self-efficacy in the career exploration proc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5, 194-203.
- Blustein, D. L., & Flum, H. (1999). *A self-determination perspective of interests and exploration in career development*. In M. L. Savickas and A. R. Spokane (Eds.), *Vocational interests: Meaning, measurement, and counseling use* (pp. 345-368). Palo Alto, CA: Davies-Black.
- Blustein, D. L., Devenis, L. E., & Kindney, B. A. (1989). Relationship between the identity formation process and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2), 196-202.
- Buhrmester, D. & Furman, W. (1984). The development of companionship and intimacy. *Child Development*, 58(4), 1101-1113.
- Burke, R. J. & Bristor, J. M., & Rothstein, M. G. (1995). The role of interpersonal networks in women's and man's career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Career Management*, 7, 25-32.
- Cohen, S. & Hoberman, H.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 13(2), 99-125.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Furman, W. & Buhrmester, D. (1992). Age and sex difference in perceptions of networks of personal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63(1), 103-115.
- Hunter, F. R., & Youniss, J. (1982). Changes in functions of three relations during adolescence. *Development Psychology*, 18(6), 806-811.
- Kracker, B. (1997). Parental behaviors and adolescents career exploration.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5(4), 341-350.
- Lee, H. y., & Hughey, K. F. (2001). The relationship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to the career maturity of college freshmen from intact familie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7(4), 279-293.
- Luzzo, D. A. (1993). Value of career-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predicting career-decision-making attitud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2), 194-202.
- Mallinckrodt, B., & Fretz, B. R. (1988). Social support and the impact of job loss on older professional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281-286.
- Schmitt-Rodermund, E., & Vondrack, F. w. (1999). Breadth of interests, exploration, and identity development in adolescence. *Journal of counseling Behavior*, 55, 298-317.
- Schulenberg, J. E., Vondracek, F. W., & Kim, J. (1993). Career certainty and short-term changes in work

- values during adolescence.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1(3). 268-284.
- Super, D. E. (1955). The dimensions and measurements of vocational maturity. *Teachers College Record*, 57, pp. 151-163.
- Suzanne H. L., & David T. D., (2009). Parental Influences, Career Decision-Making Attributions, and Self-Efficacy: Differences for Men and Women?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December 2009*, 36: 95-113.
- Tolbert, E. L. (1980). *Counseling For career development*.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 Vinokur, A., & Caplan, R. D. (1987). Attitudes and social support: Determinants of job-seeking behavior and well-being among the unemployed.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7, Issue 12, 1007-1024.
- Winner, J. L. (1992). The early history of the Career Decision Scal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0(4), 369-375.

접 수 일 : 2011. 08. 18.  
 수정완료일 : 2011. 09. 09.  
 게재확정일 : 2011. 09. 19.